

지스트, 2022학년도 정시모집 경쟁률

역대 최고

- 지원자 수 1,646명, 약 82대 1로 역대 최고 기록



▲ 사진_지스트 대학A동 전경

올해로 설립 29주년을 맞은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김기선)는 3일(월) 2022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했다.

지스트는 학사 신입생 정시모집에서 20명 내외를 선발하며, 최종경쟁률 82.30대 1로 1,646명이 지원했다. 정시모집은 수능성적 100%로 선발하는 수능우수자전형 단일 전형으로 신입생을 모집한다.

올해, 정시모집 원서접수에서 지스트의 경쟁률은 82.30대 1로 역대 정시모집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이는 4개 과기원 중 최고 경쟁률로 확인됐다.

지스트 김근영 입학학생처장(물리·광학과 교수)은 "전년도에 이어 지스트는 4개 과기원 중 최고 경쟁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장차 과학기술을 이끌 미래 과학기술인의 교육 선호도를 알 수 있다"라고 밝혔다.

지스트는 2021년도 전임교원 1인당 연구비 수주액이 전국 최고인 7억 원을 돌파하면서 명실공히 연구 중심대학의 면모를 보였다. 지스트는 학부과정부터 연구 경험을 쌓을 수 있는 G-SURF(GIST Summer Undergraduate Research Fellowship), Caltech SURF(Caltech Summer Undergraduate Research Fellowship)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해외연수 프로그램 및 장학혜택을 제공하며 탁월한 연구와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다.

2022학년도 지스트 정시모집 합격자 발표는 2월 7일(월) 18시로 예정되어 있으며, 지스트 대학입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